

조정래의 『아리랑』에 나타난 장소성 연구

변 화 영 (전북대)

< 목 차 >

- | | |
|----------------------|--------------------|
| 1. 『아리랑』에서 공간 확장의 의미 | 4. 고향과 연대의 매개체 아리랑 |
| 2. 식민 항구도시 군산의 배후지 | 5. 맺음말 |
| 3. 수전민족의 이주와 정착 | |

국문초록

조정래의 『아리랑』의 공간적 배경은 김제만경평야이다. 김제만경평야에 살던 농민들은 일제의 토지수탈과 기만정책으로 어쩔 수 없이 만주와 연해주, 하와이 등지로 비극적 이산을 감행해야 했다.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한 사람들은 수전농업의 경험과 기억으로 농사를 지으며 중국과 러시아 사회에 정착하였으며, 하와이의 사탕수수 노동자로 팔려간 사람들은 몸에 체득된 끈질기고 부지런한 기질로 미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본 강점의 홋카이도나 남양군도로 강제 징용과 징병을 당한 수만 명의 청장년들과 처녀들은 대부분 죽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 『아리랑』에 호명되지 않았더라면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들 혹은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 지만복, 박용화, 복실이에 대한 기억은 망각의 지층 속에 파묻혀 버렸을 것이다. 한편, 신채호, 나철, 홍범도, 김좌진, 박영만, 김원봉 등 항일운동과 독립투쟁에 나섰던 실제 인물들이 집단기억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송수익, 방대근, 방영근, 이광민과 같은 민초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600여 명의 허구적 인물과 실제인물을 서로 실타래처럼 엮어 사실성을 구현하는 가운데 작가 조정래는 김제만경평야를 사회적인 공론의 장으로 확대시켜

장소성을 모색하고자 했다. 김제만경평야를 중심으로 만주, 연해주, 홋카이도, 하와이로의 공간 확장은 김제만경평야가 개인적인 장소애착에만 머무는 곳이 아니라 강제노역과 이산의 슬픔, 그리고 ‘반쪽짜리’ 해방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주제어: 조정래, 『아리랑』, 김제만경평야, 수전농업, 장소성, 디아스포라, 기억

1. 『아리랑』에서 공간 확장의 의미

『아리랑』은 1990년 12월 11일부터 『한국일보』에 연재되기 시작해 1995년 8월 ‘해방 50주년’을 맞아 12권이 완간되었다. 제4부 12권으로 구성된 『아리랑』은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삶을 형상화한 대하역사소설이다. 『아리랑』 12권은 총 174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장들은 대다수가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아리랑』의 서사 시간은 조선의 치안권이 일본에 이양된 1904년 6월부터 시작되어 1945년 해방된 날까지이다. 그 공간적 배경은 김제만경평야를 중심으로 하여 국내로는 군산과 목포, 경성으로 이어지지만 국외로는 하와이, 홋카이도, 연해주, 만주, 타슈켄트로 확장되어 있다. 국외의 지역들이 김제만경평야를 중심으로 한 공간 확장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소설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태어나고 자란 김제만경평야에서 농지를 잃고 이산을 감행한 결과이다.

김제만경평야가 시작되는 김제는 한일합방 이전부터 일본의 수탈과 착취의 대상지였다. 김제를 포함한 전북지역은 1899년 군산이 개항된 이후 1903-1904년 사이에 일본자본의 토지수탈에 의한 반봉건적 생산관계가 확립되었다.¹⁾ 한일합방 이전 일본은 기경지인 논농사지대를 중심으로 토지수탈

을 감행했는데 가장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토지매입이 이루어진 곳은 김제만경평야 일대였다. 김제만경평야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대평원으로 중요한 “쌀” 생산지이자 조선인의 생명을 유지케 하는 주요 젖줄이었다. 김제만경평야가 최대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강점 이전부터 일본은 군산을 강압적으로 개항하게 하고 땅을 매입하여 쌀 수탈의 거점지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군산은 김제만경평야에서 생산된 쌀을 집산해 오사카로 보내는 전형적인 식민지형 도시가 되었으며, 만주와 연해주, 홋카이도 등은 일제의 토지수탈 정책과 징용 및 징병으로 강제 이동한 주요 이주지역이 되었다. 그러므로 『아리랑』의 주요 공간 배경인 김제만경평야는 최대 쌀 생산지이자 조선인의 생명선이라는 고유성을 지닌 채 군산 및 만주, 연해주, 하와이, 홋카이도 등과의 지역적 관계 속에서 총체적으로 조명되어야 그 장소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아리랑』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조선인들의 투쟁과 저항의 역사로 접근한 주제적 입장²⁾, 항일/친일의 대별이나 농민 및 양반을 중심으로 살펴본 인물 분석적 입장³⁾, 국외로 이주한 주요 인물들을 디아스포라로 조명한 입장⁴⁾ 등

- 1) 김민영·김양규, 『철도, 지역의 근대성 수용과 사회경제적 변용—군산선과 장항선』, 선인, 2005, 100쪽.
- 2) 김창식, 「민족사의 복원과 민족혼의 부활을 위하여—조정래의 『아리랑』」, 『오늘의 문예비평』, 오늘의 문예비평, 1996; 우수영, 「조정래 『아리랑』에 출현하는 공감연대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 제59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장영우, 「사실의 재구(再構)와 원근법의 수위(水位)—조정래, 『아리랑』론」, 『조정래』, 글누림, 2010.
- 3) 왕은철, 「식민지 시대의 지식인상을 통해서 본 민족주의—조정래의 『아리랑』론」, 『비평문학』 제14호, 한국비평문학회, 2000; 윤영옥, 「근현대 농민소설에 나타난 농민의 표상과 민족—조정래의 『아리랑』, 이기영의 『두만강』에 나타난 사회연결망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159집, 국어국문학회, 2011; 정종진, 「조정래의 『아리랑』, 『태백산맥』에 나타난 사서인(士庶人) 정신 연구」, 『비평문학』 제20호, 한국비평문학회, 2005; 조남현, 「역사적 진실과 소설적 흥미의 상성(相成)—『아리랑』론」, 『조정래』, 글누림, 2010.
- 4) 강찬모, 「조정래의 대하소설 『아리랑』에 나타난 한민족 디아스포라 연구—미국 이주 韓人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33호, 한국비평문학회 2009; 전영의, 「『아리랑』의 오리엔탈리즘과 디아스포라」, 『현대소설연구』 제46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이 있다. 물론 기존의 성과물들을 이 세 가지 입장으로 귀결하는 것은 무리가 없진 않지만 그런데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논문들 대다수가 민족주의를 작가가 담아낸 최고의 선으로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제만경평야가 소재한 김제를 구심으로 만주, 연해주, 하와이, 홋카이도 등 여러 지역들 간의 연계망들이 사실적인 사건들과 더불어 『아리랑』에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것은 이 소설이 자국중심적인 민족주의 혹은 국민국가의 틀을 뛰어넘어선 지역 간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음을 뜻한다. 즉, 강제 이주와 월경, 유랑과 정착, 중심과 주변을 횡단해온 농민과 지식인, 학생들의 고단하고 험난한 체험들과 기억들은 중국과 러시아, 미국, 일본이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라 만주와 연해주, 하와이, 홋카이도 등과 같은 초국가적인 지역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농민, 독립군, 징용자, 학도병, 종군위안부 등과 같은 디아스포라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글로벌한 공간⁵⁾인 김제는 다른 지역들과의 연계망을 통해 구체적으로 접근될 수 있기에 『아리랑』에 대한 연구는 한편으로는 공간 연구의 대상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아리랑』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그 공간적 배경인 김제와 다른 지역과의 관련성을 통해 김제만경평야의 장소성을 살펴보고 그 지역들이 갖는 의미를 통해 『아리랑』의 소설사적 의미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식민 항구도시 군산의 배후지

『아리랑』의 서사 시간은 방영근이 하와이의 역부 모집에 나선 1904년부터 해방이 되던 1945년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에 을사조약이 체결되고(1905), 의병운동 발생(1907), 장인환의 스티븐슨 암살 사건(1908), 안중근 의사 의거(1909), 토지조사사업 실시(1910), 역둔토 특별처분령(1913), 토지조사사업 완료(1918), 3·1운동(1919), 봉오동·청산리 전투(1920), 경신참변(1920), 관동대지

5) 윤영옥, 앞의 논문, 309쪽.

진(1923), 6·10만세운동(1926), 신간회 결성(1927), 광주학생운동(1929), 만주사변 발발(1931), 보천보 진공(1937)⁶⁾, 중앙아시아 강제이주(1937), 국가총동원법 공포(1938), 창씨개명 시행(1940), 태평양전쟁 발발(1941), 징병제 실시(1943), 정신대근무령(1944), 조선 분할통치령 발표(1945) 등이 일어난다. 1904년부터 1945년까지 40여 년 동안 실로 중대하고도 가공할만한 사건이 많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리랑』의 서사는 그 사건들을 제치고 1904년에 실시된 하와이 이민 모집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아리랑』의 첫 장면은 감골댁과 그녀의 아들 방영근, 지삼출이 김제만경 들판 한가운대를 부산하게 걷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초록빛으로 가득한 들녘끝은 아슴하게 멀었다. 그 가이없이 넓은 들의 끝과 끝은 눈길에 닿지 않아 마치도 하늘이 그대로 내려앉은 듯싶었다. (...) 그들 세 사람은 걸어도 걸어도 끝도 한정도 없이 펼쳐져 있는 들판을 걷기에 지쳐 있었다. 그 끝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 넓디나 넓은 들녘은 어느 누구나 기를 쓰고 걸어도 언제나 제자리에서 헛걸음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 벌판은 <징계 맹갱 외에밋들>이라 불리는 김제·만경 평야로 곧 호남평야의 일부였다. 호남평야 안에서도 김제·만경 벌은 특히나 막히는 것 없이 탁 트여서 한반도 땅에서는 유일하게 지평선을 이루어내고 있는 곳이었다. (...) 일찍이 대동여지도를 만들어 선각의 위업을 홀로 세우고서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왕에게 죽임을 당한 김정호 선생은 대동여지도를 엮어내기 위해 반도 땅 전체를 일곱 차례 이상 살살이 답사하면서 호남평야에 발을 디딜 때마다 그 가이없이 넓은 벌에 무릎 꿇고 이마 대어 고마움의 절을 올렸다는 것이다. 그분은 험산준령이 반도땅의 칠할을 넘게 차지하고 앉은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그 척박한 땅에 다행히 호남평야가 펼쳐져 있어 거기서 나는 곡식으로 이 땅의 목숨 칠할이 먹고 산다는 것도 알았으므로 그렇게 절을 올릴 수

6) 1937년 6월 5일 동아일보에 실린 호외에 김일성이 2백여 명을 이끌고 보천보를 습격하여 면사무소, 우편소, 초등학교, 소방서 등을 방화했다는 보도가 실린다. 만주사변이 발발하고 사회주의 세력이 약해져가고 있을 때 발발한 보천보 진공은 ‘친일 반역자들 빼고 조선사람이라면 통쾌하게 여길’(10:206) 사건이었다.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는 보천보 전투가, 북한의 역사 교과서에는 청산리 전투가 누락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정래의 『아리랑』은 남북한의 균형 있는 역사기술의 표본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밖에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삼 년 전부터 그 들녘에서 해피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논들의 주인이 슬슬 바뀌기 시작했던 것이다.(1:9-12)⁷⁾

『아리랑』에 등장하는 서술자는 방영근, 갑골택, 지삼출 세 사람이 “징계 맹갱 외에밋들”, 즉 ‘김제 만경 너른 들’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전달하면서 한반도를 7번이나 답사한 김정호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호남 평야⁸⁾에서 소출되는 쌀로 ‘조선사람 7할이 먹고 산다’며 그 중에서도 지평선이 보이는 김제만경평야는 대평원인데 조선인의 생명 유지의 쌀을 생산해내는 이 곡창지대의 땅을 2, 3년 전부터 일본인들이 조심스럽게 대단위로 매입하고 있으니 큰일이라는 것이다. 서술자의 우려는 곧 작중인물 지삼출의 분노 섞인 두려움으로 표출되었다. 지삼출은 ‘3, 4년 사이에 군산은 <왜산>이 되고 있고 김만경들판도 하루가 다르게 <왜놈들판>이 되는 것을 보니 일본이 조선 땅을 강점할 날도 멀지 않았다’며 그때는 갑오년처럼 나설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방영근과 갑골택 앞에서는 봉기 투쟁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토로하지는 않는다. 방영근이 하와이의 노무자로 끌려가는 이유가 동학농민혁명의 후유증으로 앓고 있던 아버지의 병수발에 든 18원을 갚기 위해서였던 탓이다.

지삼출은 방영근의 아버지와 함께 동학군으로 활동했었다. 갑오년에 일어난 혁명에 동학군으로 가담했던 방영근의 아버지가 세상을 뜬 이후 지삼출은 갑골택네와 형제처럼 지내왔다. 동학농민혁명으로 엮혀진 세 사람의 관계는 10년 동안 유지되어 1904년 서사 시작의 기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아리랑』에서 세 사람이 ‘징계 맹갱 외에밋들’이라고 불

7) 조정래, 『아리랑』 전12권, 해냄, 2판5쇄, 2002(본 논문의 인용문에 기입된 숫자 중 왼쪽은 권수, 오른쪽은 책의 쪽수임).

8) ‘호남평야’라고 할 때 그 지리적 범위는 일반적으로 전라남북도를 가리킨다. 전라도는 지형적으로 넓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일찍이 논농사에 필수적이라 할 수 리시설이 발달되어 있었다. 오래 전부터 이 지역에는 벽골제, 남제, 황등제 등 국중(國中) 대제(大堤)가 있었으며, 오늘날 이 지역을 호남(湖南)이라 칭한다(김제시사 편찬위원회, 『김제시사』, 1995, 345쪽). 호남평야 가운데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에 전개되는 평야지대를 김제만경평야라 부른다.

리는 김제만경평야를 걷는 장면은 지삼출과 감골택내와의 동학적 연대감을 공유하는 상징적 장면⁹⁾이자 동학농민혁명을 스토리 세계로 끌어오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장면은 1894년에 일었던 동학농민혁명의 불씨가 1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꺼지지 않고 1904년 이후 김제만경평야에서 다시 피워 오르고 있음을 함의하고 있다.¹⁰⁾ 이렇게 해서 1904년으로 시작되는 서사 시간은 18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스토리 시간과 접점을 이루게 된다.

감골택, 방영근, 지삼출이 대륙식민회사에 가기 위해 나선 군산은 1899년에 개항된 항구도시이다. 한일합방이 되기 전 일본은 식민통치와 수탈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이미 군산에 영사관은 물론 다양한 기관과 회사들을 설립해 두었다. 일본은 신작로를 개설하면서 철도부설권을 확보해 나갔다. 부산에서 신의주까지를 오갈 수 있는 경부선과 경의선을 개설한 일본은 호남선과 경원선을 착공했다.¹¹⁾ 1910년 공사에 착수하여 1914년에 완공된 호남선 본선이 통과하는 지역은 충남, 전북, 전남의 3도에 걸치고 전주평야를 비롯하여 수많은 기름진 들판을 아우르는데, 이 평야들은 금강, 만경강, 동진강, 영산강 유역에 속하여 한반도의 곡창지대를 이룬다.¹²⁾ 군산역에서 부두로 철길이 연장된 것도 원활하게 쌀을 수탈하기 위해서였다. 군산항역의

9) 강찬모, 『조정래의 대하소설 『아리랑』에 나타난 한민족 디아스포라 연구—미국이주 韓人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33호, 한국비평문학회, 2009, 17쪽.

10) 1894년 농민이 중심이 되어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아리랑』에서 을사조약 체결에 반대하면서 봉기된 의병활동으로, 독립운동으로 재생산되었다. 일본군의 대토벌로 의병들과 독립군들이 대규모로 학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김제만경평야에 사는 농민들에게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남아 있었다.

11) 대전에서 목포까지 이어지는 호남선은 평야지대를 관통하면서 농산물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고, 한양에서 원산까지 이어지는 경원선은 산악지대를 관통하면서 산림과 지하자원을 장악하고자 했다. 한양을 중심으로 개설된 경부선, 경의선, 호남선, 경원선은 반도땅을 서로 엮갈리며 관통하였는데 그 종착역은 모두 항구였다.(2:176)

12) 김민영·김양규, 앞의 책, 173쪽.

대형 창고에 산적된 쌀들은 대부분 김제만경평야에서 소출된 것으로 전주와 군산을 잇는 신작로를 따라 우마차로 운반되었다. 호남선 개통으로 사회기반 시설이 확충되자 일본은 쌀 수탈을 본격적으로 감행하였다. 대규모의 항구시설 설비, 신작로 개설, 철도 부설 등을 통한 군산의 근대화는 조선의 토지를 강탈하고, 농수산물을 수탈하며, 신속한 식민통치체제를 유지케 하는 식민지화에 불과했다.

김제만경평야 덕분에 쌀의 도시가 된 군산에는 은행과 미두장 또한 즐비하였다. 미두는 이름 그대로 쌀 시세를 놓고 벌이는 투기로 조선인들은 미두에 정신없이 빠져들었다. 만경의 만석꾼 정재규도 미두에 빠져 전 재산을 날리고는 김제만경평야의 들녘에서 객사했다. 수탈된 벼는 정미소에서 도정되어 쌀 속에 섞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미선소로 보내졌다. 군산에서 미선소를 겸한 정미소를 운영할 수 있는 조선인은 백종두, 장덕풍과 같은 일제의 앞잡이인 친일분자뿐이었다.

군산의 식민지 근대화는 이처럼 김제만경평야의 쌀을 매개로 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는 일이었다. 1899년 군산이 개항되자 일본인들은 한일합방 이전인 1903, 4년부터 김제의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그렇지! 수평선이 아니라 지평선이지. 그 끝이 바로 바다와 연결되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계속 걸어가면 바로 바다가 나옵니다.」 「됐소! 우리가 이 일대를 전부 차지해야 하오.」 (… 「요시다, 내 말 잘 들으시오.」 두 번째 사내는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길게 내뿜고는, 「우리 지금 일생일대의 막중한 사업 앞에 서 있소. 저 광활한 들판은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여는 사업장이면서 우리 일본인들의 쌀 창고요. 이 일대를 손아귀에 넣기만 하면 우리 사업은 승승장구인 동시에 우리 일본의 쌀 부족도 거뜬하게 해결되는 것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손아귀에 넣도록 하시오. 요시다, 그 대가가 뭘지 알겠소? 당신이 바로 농장의 총지배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요.」 하는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옛, 모리야마 상무님. 말씀 명심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요시다는 작은 체구가 곳곳해지도록 전신에 힘을 넣으며 가는 눈을 빛냈다. 「왜 꼭 이 일대를 잡으라는 건지 알겠소?」 요시다보다는 몸집이 큰 모리야마가 상대방을 뻔히 쳐다보며 물었다. 「저어…… 바다가, 아니 항구가 가까워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요시다는 아주 조심스러운 반응이었다. 「바로 그거요,

그거!』(1:143-144)

일본인들은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드넓게 펼쳐진 김제만경평야의 땅을 매입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일본에서는 쌀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본인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조선의 쌀을 일본으로 반출하는 일은 중대 사안이 되었다. 이에 일본인 대농장의 상무 모리야마는 김제만경평야의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감독 요시다에게 논이란 논은 닥치는 대로 사들이라고 명령한다. 또한 군산은 광활한 곡창지대를 뒤로 거느리듯 하고 있으니 벼를 도정해 군산항을 통해 오사카로 실어 나르면 그만큼 운반비와 시간이 절약된다고 농지구입을 재촉하였다. 모리야마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산이 1899년 개항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인의 쌀 창고’가 될 곡창지대 김제만경평야를 배후지로 끼고 있는 경제적 결절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아리랑』의 첫 장면의 무대이자 공간적 배경인 ‘징계 땡깡 외에밋들’은 일제강점기 항구도시 군산의 배후지로서 일본인의 쌀 창고가 되고 말았다.

3. 수전민족의 이주와 정착

『아리랑』에서 인물들의 디아스포라 양상은 중층적이고 다양하다. 타슈켄트에 짐짝처럼 버려진 윤선숙, 공사장을 도망쳐 아이누족의 거주지로 피신한 차득보, 소련군의 포로가 되어 흑룡강을 건너 연해주로 끌려간 지만복 등은 일본이나 소련 당국의 명령에 의해 강제 이주한 비자발적 디아스포라들이다. 강제 이산된 윤선숙, 차득보, 지만복이 끌려간 타슈켄트, 홋카이도, 연해주는 조선인들이 이주해 정착할 수밖에 없었던 동토였다. 하지만 송수익과 송가원, 방대근, 오삼봉, 지삼출, 차득보, 필너 등은 지주의 횡포를 피해 혹은 독립운동을 하고자 만주로 이주한 자발적 디아스포라들이다. 이 중에서 송수익은 의병장으로 선봉에 섰던 전력 때문에 만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비자발적인 성격 또한 강하다. 한편, 방영근은 빚을 갚기 위해 하와이

노동자 모집에 응했다는 것으로 보면 자발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그 뒤에는 일본의 음모와 지주의 횡포가 내재해 있었다는 점에서 비자발적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 비자발적 이주이든 자발적 이주이든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옮겨간 곳은 만주였다.

일본이 부와 자본으로 기경지를 조직적, 대대적으로 사들이는 바람에 토지조사사업 8년이 끝난 1918년에는 호남평야 땅의 45%가 조선총독부 소유가 되었다. 또한 1920년대에 실시된 산미증산계획을 비롯해서 많은 식민지 정책들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 소작농의 몰락을 가속화했다.¹³⁾ 조선인의 9할 가까이가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농토를 잃은 사람들 상당수는 너른 들판이 펼쳐진 만주 땅으로 이주하였다. 중국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버려진 땅에 이주민들은 농사를 지었다. 근처에 물만 있으면 습지나 저지를 일궈 벼를 심었다.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쌀 주식의 습속을 버릴 수 없어 조선인 이주민들은 벼농사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조선인에게 쌀은 곧 생명이었다.

중국사람들은 만주의 조선사람들을 <메기>라고 불렀다. 한사코 물가를 찾아가 논을 일구기 때문에 붙인 별명이었다. 그런 별명을 붙여 놀리는 것은 중국사람들이 마음의 여유를 찾았다는 표시이기도 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사람들은 조선사람들이 만주로 오는 것을 노골적으로 싫어했다. 자기네들의 농토가 줄어들까봐 갖게 된 적대감이었다. 그런데 조선사람들은 밭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저 물 가까운 습지나 저지를 찾아다니며 논을 일구었던 것이다. 그러자 밭농사밖에 지을 줄 모르는 중국사람들은 마음이 편해진 것이었다. 밭을 일구는 것에 비해 논을 일구는 것은 몇 갑절 더 힘이 들었다. 밭을 일구는 데는 나무뿌리나 풀뿌리를 캐내고 돌을 골라내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논을 일구자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논둑을 쌓아야 하고, 물길을 터서 도랑을 내야 하고, 논로를 닦아야 했다. 조선사람들은 메기라는 놀림을 당해 가며 피땀을 흘렸지만 결국 소작인으로 묶일 수밖에 없었다. (...) 동포들이 만주땅에 안착하면서 그 기반으로 독립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반면에 동포들 거의 전부가 중국지주들의 소작인 노릇을 해야 한다는

13) 마이클 김, 『상실된 전쟁의 기억—월경의 트라우마와 조선인들의 만주 탈출 1945-1950』, 『기억과 전쟁—미화와 추모 사이에서』, 휴머니스트, 2009, 332쪽.

사실이 더없이 서글썸던 것이다.(5:20)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벼농사를 짓고 사는 조선인을 보고 중국인들은 ‘메기’라고 놀렸다. 그런 중국인들이 습지나 저지를 개간해 옥토로 만들어 놓으면 어느새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탓에 이주민들은 또 다시 소작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조선인들은 일본이나 시베리아보다도 만주 땅으로 이주하기를 원했다. 청나라의 힘이 쇠해지면서 봉금령이 흐지부지 되자 조선사람들은 만주로 몰려가 넓고 물길이 있는 곳에 터를 잡게 되었다. 또한 만주 땅은 발해의 고토(故土)였다. 이 점은 조선인 이주민들과 독립군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만들었다. 만주뿐 아니라 연해주 수청도 발해의 영토였다.

일제에게 토지를 강탈당한 조선사람 일부는 고향이라는 장소를 상실한 후 생존과 항일을 위해 수청으로 이주하였다. 수청에 정착한 조선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빨치산부대의 항일투쟁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러시아 연해주 수청¹⁴⁾의 현재 지명은 파르티잔스크로 비정규유격대를 뜻하는 파르티잔에서 따와 명명되었다. 이곳이 ‘빨치산스크’로 불릴 정도로 조선인들에게는 항일무장투쟁이 격렬했던 지역이었다.

수청이라는 곳은 아주 묘하게 생긴 산악지대였다. 석탄이 많이 나오는 그곳은 굽이굽이 산줄기였고 첩첩이 산줄기였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겹을 이루고 있는 산줄기들이 별로 높지 않으면서 그만한 높이로 다른 산줄기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산줄기들은 서로서로 손을 잡듯이 여러 가지 모양의 큰 동그라미를 그려내며 분지를 품고 있었다. 그 모양을 산봉우리에서 바라보면 마치 사방연속무늬가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 분지마다 조선사람들이

14) 수청은 수찬(Suchan), 소성(蘇城) 등으로 불리다가 1972년에 파르티잔스크로 개명되었다. 이는 과거 내전시기에 적색 유격대가 이곳의 험준한 산악을 활용하여 용감히 싸운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붙여진 지명이다. 수청은 두만강 접경지역인 포시예트 지역과 우수리스크 지역과 더불어 조선인 마을이 집중적으로 조성된 연해주 지역의 대표적인 조선인 집단 거주지였다(이상근, 『러시아·중앙아시아 이주한인의 역사』, 국학자료원, 2010, 114쪽).

논밭을 일구어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빨치산부대들은 그 산줄기를 타고 다니며 일본군들과 싸우고 있었다. 좌에서 치고 우로 빠지고, 동에서 치고 서로 빠지고, 남과 북에서 협공을 하고, 그보다 더 좋은 빨치산투쟁은 없었다. 그곳을 <빨치산스크>로 이름 붙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산세만 빨치산들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었다. 조선사람들이 분지마다 크고 작은 마을들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빨치산의 열렬한 지원자들이었고 충실한 정보원들이었다.(7:183)

이주 초기에는 조선사람들이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두만강을 넘어 연해주로 옮겨온 생활형 이주였으나 1905년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면서부터는 일본에 저항하기 위해 이주하는 항일운동형 이주가 다수를 이루었다. 이로 인해 수청 또한 독립운동의 기지 중 하나가 되었다. 산악지대에서 활동하던 50여 개의 빨치산부대들 대다수는 조선인들과 러시아인으로 이루어진 혼성부대였다. 총알과 쏙신, 식량 등 모든 보급은 수청에 정착한 조선사람들이 마련해 주었다. 일본군들은 대병력을 투입해 빨치산 색출에 전력하는데도 고전을 면치 못하자 조선사람 천여 명을 마구잡이로 죽이고 집을 불태웠다. 분지 마을들과 빨치산과의 연계를 끊으려고 취한 일본군의 악질적인 방법이었다. 수청 일대의 빨치산부대에 투입된 이광민은 이국 러시아에서도 물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논농사를 짓는 조선인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광경을 보면서 쌀이야말로 조선인을 척박한 땅에서도 살아남게 하는 생명의 원동력임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물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 조선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논을 경작했다. 낫선 땅 러시아로 이주한 조선사람들은 땅과 소통하면서 장소상실로 인해 맞는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¹⁵⁾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주지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항일운동과 독립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였다. 땅과 독립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질은 땅에 물을 대어 쌀을 생산해내는 조선인의 수전민족적 기질과 맞닿아 있다. 수전민족의 기질은 스탈린에 의해 자행된 국가테러리즘 속에서도 조선인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한 동력이 되었다.

1937년 8월 21일 소련 인민위원회 및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5) 장석주, 『장소의 탄생』, 작가정신, 2006, 28쪽.

연해주 일대의 20만 조선사람들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다. 강제 이주의 주된 이유는 조선사람들 사이에 일본의 간첩이 침투할 수 있다는 ‘상상되는 범죄’의 차단¹⁶⁾에 따른 조치였다. 윤선숙이 화물차에 짐짝처럼 버려져 짐승 취급을 받으며 내린 곳은 만년설을 머리에 이고 있는 천산산맥 부근의 타슈켄트였다. 윤선숙의 남편은 화물짝 취급을 받는 것에 항의하다 행방불명되었고 아들 정환은 도착한 지 열흘 만에 풍토병으로 죽었다. 물이 달라지면서 생긴 풍토병과 말라리아 때문에 허약한 아이들과 노인들이 똑 같은 증세로 줄줄이 죽어갔다. 윤선숙과 함께 이주한 조선인들은 모기, 뱀, 독거미에 시달리면서도 갈대밭이나 소금 땅을 농토로 만들었다.¹⁷⁾ 이들은 소금 땅에 수없이 물을 대고 빼고 하면서 간기를 없앴 후 벼농사를 지어 쌀을 생산했던 것이다. 조선인의 수전민족적 기질은 하와이 땅으로 끌려간 방영근 일행의 일상에도 잘 나타나 있다.

동학군으로 나선 아버지의 병구완으로 진 빛을 갚지 못해 결국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강제 이주한 방영근은 백인 감독의 철저한 감시와 가혹한 노동량을 곳곳이 견디어내며 동료들과 함께 하와이 생활을 시작한다. 빼만 남은 야원 주만상이 사탕수수에 장단지가 찢려 죽게 되자 조선인 농장 노동자들은 힘을 합쳐 농장주를 상대로 조선식 장례를 치르게 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다. 꽃술을 단 상여에 놓인 주만상의 유품은 30달러 10센트로 이 돈은 사탕수수 노동자로 1년 반 동안 일해서 벌은 돈의 일부였다. 아리랑을 부르며 상여를 맨 조선인 노동자들은 주만상의 넋을 위로하고 자신들의 서러운 처지를 달래면서, 한편으로는 단결된 집단의 힘을 확인하게 된다. 조선 통감부 외교 고문관인 스티븐슨을 살해한 장명환과 전명운의 거사로 분출된 민족의식으로 방영근과 남용석 등 조선인 노동자들은 사탕수수 농장과 파인애플 농장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면서 애국성금을 내고 국민회¹⁸⁾와 국민

16) 권희영, 『중앙아시아 한인들의 역사적 외상과 그 영향 분석』, 『우즈베키스탄 한인의 정체성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30쪽.

17) 김균태·강현모,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이주와 삶』, 글누림, 2015, 75쪽.

18) 조국도 없고, 미국시민도 아닌 무국적 상태에서 국민회는 조선인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또한 조선인을 일본인과 구분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었다(이덕희,

군단에 소속되어 병식훈련을 받는 등 조국독립을 위해 분투하였다. 하와이의 붉은 들판이 싱싱한 사탕수수과 파인애플이 열리는 수확의 땅으로 탈바꿈된 데에는 조선인 이민자들의 수전민족적 근면과 성실성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인 이민자들이 농장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이민족 노동자들과의 차별성이 생겨 농장주들은 조선인 노동자를 선호¹⁹⁾하였고, 국권회복의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하여 미국사회에서 조선인의 위상을 높였다.

만주와 연해주, 타슈켄트, 하와이에 걸쳐 나타난 수전민족적 특성은 총독부 관리들을 상대로 한 특별강연에서 동경제대 교수가 설명한 바 있다. 일본인 교수는 조선에서 9할 가까이 농민이며 그들은 수천 년에 걸쳐 어려운 수전농사를 지으면서 자연에 적응하는 부지런함과 자연재해를 견디고 이겨내는 끈질김과 자연환경을 이용할 줄 아는 영리함을 발휘했다며(5:340) 특히 조선 농민들의 끈질긴 저항 정신에 주목할 것을 요구하였다.

『예, 그것 아주 필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시한 조센징들의 수전민족으로서의 세 가지 기질, 부지런하고 끈질기고 영리하다는 것 중에서 그동안 심각하게 문제가 되어온 것이 끈질기다는 것과 영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끈질기다는 것입니다. 회고해 보면, 조센징들은 을사보호조약을 계기로 자칭 나라를 구하는 의로운 군대라고 하는 의병을 도처에서 일으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 그러나 여러분, 그 폭도들은 완전히 소멸된 것입니까? 이번 교육을 통해 자세하게 공개된 바대로 그 폭도들의 일부가 만주와 시베리아로 도주해 그동안 국경수비대에 계속적으로 피해를 입혀오는 동시에 무시할 수 없는 새로운 폭도집단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건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바로 조센징들의 끈질긴 기질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만주와 시베리아뿐입니까? 조선 내에서도 지하화 된 폭도단체들이 끊임없이 검거되고 있습니다. 이젠 앞으로 크게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대목입니다.』(5:342-343)

특별 초청된 교수는 을사조약 이후 조직된 의병들이 죽창과 도끼를 들고 화승총으로 신식무장한 일본군을 상대로 거침없이 싸웠으며, 만주와 시베리

『하와이 이민 100년—그들은 어떻게 살았나?』, 중앙 M&M, 2003, 163쪽).

19) 강찬모, 앞의 논문, 14쪽.

아로 도주한 의병들이 여전히 일본군을 상대로 테러를 벌이고 있고, 조선에서 지하운동단체가 끊임없이 조직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수전민족으로서의 조선인이 지닌 끈질긴 투쟁에 주의할 것을 강조하였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식민통치를 진행하자면 조선인의 몸에 체득된 수전민족의 기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인들이 두려워하는 수전민족의 기질을 여지없이 발휘한 대표적인 인물은 3.1운동에 앞장섰다가 상해로 피신한 이광민과 방대근이었다. 이광민은 흥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에 소속되어 봉오동전투에서 일본군을 맞아 싸웠으며,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방대근은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에 편입되어 청산리전투에서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다.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에서 일본군이 대파된²⁰⁾ 이후 둘은 동북항일연군으로 활동하면서 항일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일본군 보급부대의 기습에 총상으로 사망할 때까지 이광민은 전주고보에서 창가보급운동 및 만세운동에 참여한 후 만주로 피신해 흥범도 부대를 거쳐 중국 광둥으로 건너가 항일연합의 제3사 2단장을 맡을 때까지 끊임없이 조국 독립 투쟁에 나섰다. 방대근은 김좌진 독립군의 소대장, 의열단, 항일연군을 거쳐 한국광복군 비밀감찰 등 무장 항일 투사로 일본에 끈질기게 맞섰다. 대토벌 작전에 쫓겨 굶주림과 피로에 지칠 대로 지쳤으나 끝까지 일본군과 싸우다 죽은 천상길, 오삼봉, 필녀, 수국 또한 끈질긴 저항 정신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김제만경평야에는 가장 오래된 수리시설 벽골제가 존재하고 있다. 4세기 경 백제시대에 축조되어 김제만경평야에 농업용수로 공급되었던 벽골제는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수전농업이 진행되어 왔음을 알리는 흔적이다.

20)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는 대표적인 항일 투쟁의 승리사이다. 양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은 1920년 10월 조선인 농민들이 독립군과 대통한 탓에 참패했다며 이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기 시작했다. 이때 조선인 항일단체와 마을, 학교, 교회 등이 초토화 되었다(김영필, 『조선족 디아스포라의 만주아리랑』, 소명출판, 2013, 180-181쪽). 일본군은 3천여 채 이상을 불태웠고, 독립군의 협조자와 동조자들이라며 만여 명을 살해했다. 1920년에 일본군이 조선인 농민을 대학살한 사건이 경신참변(6.31)이다.

방대근과 이광민, 송수익, 지삼출, 천상길, 오삼봉, 필녀, 수국 등은 자신들의 고향 김제만경평야²¹⁾를 되찾기 위해 일제에 끈질기게 대항하였다. 이들에게 고향은 개인의 실존적 토대이기 때문에 “고향-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파괴하려는 외부의 공세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²²⁾ 『아리랑』에서 일본인 교수의 수전민족론이 자세하게 언급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쌀의 땅 조국을 기억하며 일제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투쟁했던²³⁾ 민초들의 힘이 결집된 가운데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고향과 연대의 매개체 아리랑

『아리랑』에 등장하는 송수익, 방대근, 방영근, 이광민, 송중원, 공허스님 등 주요 인물들은 신채호, 나철, 홍범도, 김좌진, 박영만, 김원봉 등 역사 속의 실재인물과 서로 사실적으로 얹혀있다. 허구적 인물과 실재 인물이 씨실과 날실처럼 유기적으로 직조되어 있어 『아리랑』은 사실적인 측면이 강하다. 사실성이 구현된 가운데 제시되는 다양한 인물군은 크게 항일적인 인물과 친일적인 인물로 대별될 수 있다. 송수익-송중원 부자, 감골댁-방대근 모자, 정도규, 지삼출, 차득보, 공허스님, 필녀 등이 조국독립을 위해 일본에 대항한 인물이라면, 백중두-백남일 부자, 장덕풍-장칠문 부자, 이동만, 양철성 등은 부와 권세를 누리고자 일본의 식민지배에 순응하며 사는 인물들이다. 후자의 인물들은 모두 세대를 거치면서까지 친일을 치적의 수단으로 삼거나 일본인의 앞잡이가 되어 세력가로 부상하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다. 반면,

21) 김제만경평야에는 가장 오래된 수리시설 벽골제가 존재하고 있다. 4세기 경 백제시대에 축조되어 김제만경평야에 농업용수로 공급되었던 벽골제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랫동안 수전농업이 진행되어 왔음을 알리는 흔적이다.

22) 장석주, 위의 책, 33쪽.

23) 작가 조정래는 수전민족론을 한민족의 저항과 투쟁의 정신적 토대로 제공함으로써 일제 36년을 패배와 굴욕의 역사로 해석했던 종래의 식민사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장영우, 앞의 글, 307쪽).

전자의 인물들은 소작쟁의, 노동쟁의, 동맹휴학을 주도한 송중원과 정도규, 만주의 독립군 연락책이자 자금책을 맡은 공허스님을 제외하면 대부분 항일 독립 운동을 하다 일본군에 쫓겨 강제 이주를 하거나 징용·징병을 당해 만주나 연해주, 하와이, 홋카이도로 이주한 디아스포라가 되었다. 문제는 징용이나 징병으로 끌려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사망하여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다. 만주나 연해주, 하와이 등지로 이주한 사람들은 몸에 채득된 기술과 기억으로 고향 상실로 인한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며 살아남았지만, 일제 말기 국가총동원법 공포로 홋카이도, 남양군도 등지로 끌려간 사람들 일부는 그 흔적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1937년 중일전쟁이 장기화 되자 항일과 친일에 앞장 선 사람들의 운명이 극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일본은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후 1943년 조선인을 상대로 징병제를 실시했는데 친일파에 해당되는 당사자나 자식들은 징용이나 징병으로 끌려가지 않았다. 조선인 징용은 의병활동이나 항일운동에 가담한 불령선인이 그 주요 대상이었으며 가난하고 힘없는 민초들이 동원되어 탄광, 비행장, 도로공사장에 강제 투입되었다. 김제에서는 차득보, 서근호, 정방현을 포함한 3백 명이 징용 대상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정방현은 전주역에서 풀려났다. 고액세납자이자 식량생산자이며 전쟁후원금 납부자가 될 만석꾼을 징용한다는 것은 일본 당국으로서는 금전적인 손해이기 때문이다. 차득보네 징용자 3백 명은 시모노세키를 거쳐 홋카이도에 도착했다. 차득보네가 투입된 곳은 도로공사장이었다. 반찬 없는 소량의 밥에 하루 12시간씩 중노동을 하면서도 조선인 노동자들은 굶주림과 서러움을 ‘아리랑’ 합창으로 달래곤 했다.

아아리랑 아아리랑 아아라아리요오…… 노래는 아리랑으로 바뀌면서 이내 또 합창으로 어우러졌다. 아리랑은 진작부터 조선총독부가 부르지 못하게 한 금지곡이었다. 그런데 조선이 아니라서 그런지 일본인 감독들은 노무자들이 합창하는 아리랑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어떤 감독은 흥얼흥얼 따라 부

르기도 했다. 어쩌면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아리랑이 금지곡이라는 것을 모를지도 몰랐다. 그런데 일본인 감독만 아리랑을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었다. 북해도의 원주민인 아이누족들까지 아리랑을 부를 줄 알았다. 그동안 조선의 노무자들이 이곳저곳의 공사장에서 수없이 아리랑을 불러온 결과였다. 물론 조선노무자들과 아이누족들과는 접촉이 철저히 금지되었다. 공사장이 아이누의 마을에서 가까운 듯하면 감독과 심장들의 감시는 더욱 철저해졌다. 조선노무자들은 일본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아이누족들을 먼발치에서 바라볼 뿐이었다. 아이누족들도 일본경찰의 통제를 받고 있어서 그런지 공사장에는 접근할 생각도 하지 않고 멀리 지나다녔다. 그러면서 그들은 끝없이 바람결에 실려 오는 아리랑을 익힌 것이었다. (...) 노무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끼리도 함부로 입에 올리 지 않는 은밀한 사실이 하나 있었다. 아이누족들한테 도망가면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무자들은 쉽게 도주를 감행하지 못했다. 도망자들이 잡혀와 처형당하는 참혹한 꼴을 보았기 때문이었다.(12:251-252)

홋카이도의 원래 주인은 아이누이다. 이들은 얼굴이 검고 키가 작으며 머리에 각각의 치장을 한 특이한 생김새 때문에 일본인과 구별되는 종족이다. 일본이 홋카이도를 강점함으로써 산간오지로 쫓겨난 아이누는 이역에 끌려온 조선인들에게 동정적인 시선²⁴⁾을 갖고 있었다. 일본인에게 차별과 억압을 받고 있던 아이누는 조선인 노무자들이 합창하는 구슬픈 아리랑을 ‘계속’ 들으면서 또한 ‘간혹’ 부르면서 자신들과 같은 처지의 조선인 노무자들을 동정하고 있었다. 차득보가 도로공사가 끝나면 생지옥인 유바리 탄광²⁵⁾으로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소문에 공사장을 탈출하여 아이누 마을로 피신해 들어갔을 때 문을 열어준 아이누는 그에게 옷을 내어주고 차를 끓여다주면서 추위와 공포를 녹여주었다. 물론 아이누와 조선인 사이에 소통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누의 휴머니즘적인 태도가 바탕이 된 가운데 기층민의 애환이 서려있는 아리랑이 그 점점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겠다. 말하자면, 아

24) 김호경·권기석·우성규, 『일제 강제동원, 그 알려지지 않은 역사』, 돌베개, 2010, 141쪽.

25) 유바리 탄광은 북해도탄광기선의 최초 탄광이자 주력 탄광이었다. 일제 말기 7천 명 이상의 조선인 노무자가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유바리 탄광에서는 일본 패망 이후 70년대 초반까지도 ‘석탄에 징용자의 뼈가 섞여 나온다’(위의 책, 263쪽)고 할 정도로 이곳은 말 그대로 조선인들에게는 생지옥이었다.

리랑이 아이누와 공감할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이다. 아리랑은 이미 1920년대 후반부터 조선인을 집단적으로 결속시키는 원동력이자 소작쟁의, 노동쟁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건이 되어 있었다. 아리랑이 조선인들의 노동현장을 파고들을 수 있었던 것은 나운규의 <아리랑>²⁶⁾이 그 첨병 역할을 했다.

아이누 마을로 피신한 차득보 이외에도 배필용은 지시마(쿠릴) 열도의 비행장으로, 김장섭은 사할린의 탄광촌으로 끌려갔다. 공사가 마무리된 후 배필용을 포함한 조선인 징용자 전원은 방공호에 갇힌 채 일본군이 던진 수류탄과 수없이 쏘아대는 총에 맞아 몰살되었고, 채탄 작업에 동원된 김장섭은 12시간 중노동에 시달리며 철저한 감시 아래 있었다. 이들 징용자와 달리 박종화는 학도병으로 끌려가 미얀마 전투에 투입되었다. 이곳에서 위안부로 일 하던 복실을 만나 비국민 조선인으로서의 위치를 깨달은 박종화는 비로소 동족 의식을 느끼게 된다.

복실과 순임은 모집인의 술책에 속아 위안부²⁷⁾로 끌려왔다. 시모노세키에

26) 나운규의 <아리랑>이 상영된 이후로 소작쟁의, 노동쟁의 등이 일어날 때마다 조선인들은 아리랑을 합창했다. 군산의 부두노동자들도 합창했고, 이리의 철도노동자도 합창했고, 논산의 성냥공장 노동자들도 합창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다. 전라도 땅에는 지역마다 가사와 가락이 조금씩 다른 전라도아리랑이 많았다. 그런데도 어디에서나 합창하는 것은 새 아리랑이었다. 활동사진 <아리랑>이 지나가면서 끼친 영향이었다.(9:57)

27) 1931년 만주 침략 직후 유곽에서 몸을 팔던 여자로 위안소를 운영하던 일본은 1938년부터는 일반 여성을 상대로 모집광고를 내고 적극적으로 위안소를 개설하기 시작하였다. ‘돈벌이 좋은 공장에 취직시켜 준다’, ‘여점원을 하면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 ‘간호부는 사람 대접받고 돈도 많이 벌고, 의사하고 결혼도 할 수 있다’라며 갖가지 거짓말을 꾸며대서 처녀들을 군용 위안부로 데려갔다. 1941년 7월부터는 처녀들을 중군위안부로 끌어가려고 전국적으로 여자사냥(12:226)을 시작했다. 총독부에서는 근로정신대로 위장된 중군위안부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친일파 지식인들과 문인들을 동원했다. 주요한은 <맹기>(국민문학, 1941.11월호)를, 노천명은 <부인근로대>(매일신보, 1942.3.4)를 발표하였고, 모운숙은 친일여용단체 조선임전보국단이 주최한 강연회에서 여성들이 일제의 전시동원체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역설했으며, 이화여전 교장 김활란은 <징병제와 반도여성의 각오>(신세대, 1942. 12월호)라는 글을 써서 반도여성은 아들과 남편을 웃음으로 전장에 보내야 한다고 충동질했다.(12:226-228)

서 갈라진 순임은 팔라우에 있는 위안소로, 복순은 미얀마의 폐구(바고)에 있는 위안소로 투입되었다. 위안부들 중에는 갑자기 성매매 환경에 노출되는 바람에 완강하게 저항하는 사람도 많았다. 일본군은 저항을 하는 위안부들을 잔인하게 폭행했으며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다. 이 강압적이고 비윤리적인 상황에 견디지 못한 말숙은 실성하였고 삼월은 끝내 자살을 했다. 폐구에서 만달레이로 이동할 때 위안부로서 역할을 할 수 없었던 말숙은 일본군에게 그대로 버려졌다. 이동부대를 따라 움직이는 위안부는 사람이 아니라 물품에 불과했던 것이다. 연합군이 팔라우를 폭격하기 시작하자 숲속으로 숨어들어 간 순님 일행은 도마뱀과 쥐를 잡아먹으며 버텼지만 결국 폭탄에 맞아 12명은 사망하였고 한 명만 살아남았다. 헤어진 순임의 행방이 궁금해진 복순은 집이 그리울 때마다 친구와 꽃을 따던 때를 떠올리며 속으로 아리랑을 부르곤 했다.

아리랑은 홋카이도나 남양군도로 끌려간 조선인 디아스포라에게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매개체였다.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민족은 있되 국가가 없는 식민지 디아스포라들은 공사장이나 전쟁터에서 아리랑을 부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곤 하였다. 위안부 복순과 노무자 차득보 등 김제 출신의 디아스포라들은 아리랑을 부르며 고향을 기억해내었으며 환기되는 김제만경평야는 모국이 되어주었다. 그러나 끝내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복순은 미얀마에서 사망했으며, 차득보는 홋카이도의 아이누 마을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식민지 말기 일본은 160여만 명을 강제 징용했고, 30여만 명의 여자들을 위안부와 정신대로 끌고 갔다. 4천5백여 명의 학도병을 포함해 징병으로 전쟁터에 끌려간 젊은이들은 40여만 명이었다.(12:268) 이 중에서 고향으로 살아 돌아온 귀향자의 숫자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망자나 행방불명자의 숫자가 귀향자의 숫자보다 많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 강점의 홋카이도나 남양군도로 강제 징용과 징병을 당한 수십만 명의 청장년들과 처녀들은 대부분 죽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 『아리랑』에 호명되지 않았더라면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들 혹은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억

은 망각의 지층 속에 파묻혀 버렸을 것이다. 작가 조정래는 무엇보다도 위안부로 끌려간 처녀들의 이름을 호명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들에 대한 기억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로써 성 없이 명명된 ‘복순’, ‘순임’, ‘말숙’, ‘삼월’ 등은 수만 명의 위안부를 대변하는 이름이 되었으며 또한 식민지 시기 위안부의 흔적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가 지금 기억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인 것처럼 식민지 시기의 흔적은 지금 우리의 현실과 유리되지 않은 채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이라는 단어가 식민지 시기와의 단절을 의미할 수는 없다. 한국사회 구성원 대다수는 1945년 8월 15일을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해방’의 날로 균질적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그 균질적 기억과 다른 개인적 혹은 집단적 기억 또한 존재하고 있다. 하얼빈의 중화진에 사는 조선인 디아스포라들에게 ‘해방’은 ‘그때 그 사변’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사람들은 연장을 휘두르며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중국사람들과 열크러졌다. 「으악!」 「아이쿠메!」 처절한 비명 속에 피가 튀는 난투극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쉽사리 끝나지 않고 있었다. 조선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중국사람들에게 덤벼들고 또 덤벼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사람의 연장을 뺏어 싸우기도 했다. 여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광막한 벌판 저쪽으로 기를 쓰며 도망가고 있었다. 그들은 압록강과 두만강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남자들이 거의 다 쓰러져 갈 즈음 여자들과 아이들의 모습은 끝없는 광야 저쪽에 점으로 사라져 가고 있었다. <끝>

덧붙임: 그들은 그날 이후 오늘날까지 그때를 <해방>이라 부르지 않고 <그 사변>이나 <그때 사변>이라 부르며 살고 있다.(12:316-317)

위의 인용문은 『아리랑』의 끝 부분이다. 남만석을 비롯한 600여 명이 일본의 패망으로 고향 갈 짐을 꾸리려고 할 때 도끼, 낫, 쇠스랑을 든 중국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일본의 만선척식주식회사가 군량미의 효율적인 소출을 위해 발농사만 짓는 중국인들을 총으로 위협해 몰아내고는 그 땅에 논농사 경험이 풍부한 전라도 사람들을 배치한 데에 대한 일종의 보복행위였

다. 1939년 만선척식주식회사의 선전에 유혹되어 정착했던 조선인 이주민들은 중국사람들에게 보복 폭행을 당하고는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조선인 이주민들은 그날 이후 오늘날까지 ‘중국사람들과 한데 엉겨 피를 흘리며 난리를 치른 날’을 <해방>이라 부르지 않고 <그 사변> 혹은 <그때 사변>으로 기억하고 있다.²⁸⁾

중화진의 조선인 집단촌 사람들은 해방된 날을 ‘그 사변’ 혹은 ‘그때 사변’으로 말하며 ‘통탄’해 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전라도 말을 쓰고 전라도식 막걸리를 마시며 잔칫날 아리랑을 몇 번씩 다 함께 부르며 살고 있는 중화진 사람들에게 해방은 여전히 한으로 남아 있다. ‘팔일오’에 대한 균질적 기억에 대한 균열은 어쩌면 중화진 사람들뿐 아니라 징용과 징병, 위안부로 끌려가 어쩔 수 없이 세계 각지로 흩어진 수많은 조선인 디아스포라에게도 해당되는 일인지도 모른다. 분단과 더불어 찾아온 ‘반쪽짜리’ 해방과 일제의 의도적인 방치와 간교함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조선인 디아스포라들이 겪었을 고통과 고난을 생각해 보더라도 일제 36년은 지금까지도 엄연히 살아있는 현재라고 할 수 있다. 『아리랑』이 독자가 그 작품을 접하지 않았더라면 알지 못했을 경험지역에 관심을 기울이는²⁹⁾ 것은 이 때문이다.

남만석네 사람들이 사는 중화진의 조선인 이주민촌뿐 아니라 만주의 통화, 연해주와 파르티잔스크,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하와이 등은 작가 조정래가 직접 답사해서 공간적으로 형상화한 경험지역들이다. 국내에서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해 농사를 짓고 살거나 징집과 징병으로 훗카이도로 끌려가는 여러 상황을 통해 조정래는 김제만경평야를 단순히 개인적인 장소애착에만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사회적인 공론의 장으로 확

28) 조정래, 『누구나 홀로 선 나무』, 문학동네, 2003, 290-291쪽(하얼빈의 외곽지역 중화진에는 전라도 출신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 작가 조정래는 『아리랑』의 대미를 장식할 끝부분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 고심하다가 전라도 사람들이 이주해 살고 있다는 중화진을 찾아 만주까지 갔다고 한다. 『아리랑』의 ‘덧붙임’의 마지막 문장은 일제 강점의 36년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29) 이-푸 투안, 구동화·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운, 1995, 263쪽.

대³⁰⁾하고 있다.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한 사람들은 수전농업의 경험과 기억으로 농사를 지으며 중국과 러시아 사회에 정착하였으며, 하와이의 사탕수수 노동자로 팔려간 사람들은 몸에 체득된 끈질기고 부지런한 기질로 미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본의 홋카이도나 남양군도로 끌려간 징병자나 위안부들은 상당수가 죽거나 행방불명되었다. 그러므로 김제만경평야를 중심으로 한 해외지역으로의 공간 확장에는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이주한 조선인 디아스포라를 통해 일제 식민 36년은 흘러간 과거가 아니라 오늘도 엄연히 살아 있는 현재라는 사실을 제시하고자 한 조정래의 작가의식이 내재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국땅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아리랑’을 통해 고향을 기억하며 공감을 형성했던 것처럼, 작가 조정래는 독자가 『아리랑』을 통해 이름 없이 죽은 사람들 혹은 조선인 디아스포라들과 소통과 연대를 모색하는 길이야 말로 일제 36년을 기억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5. 맺음말

본 논문은 조정래의 『아리랑』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김제만경평야가 지닌 장소성을 국내적으로는 군산, 국외적으로는 만주, 연해주, 홋카이도, 타슈켄트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김제만경평야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장소일 뿐 아니라 비극적 이산을 감행해야 했던 농민들의 고향이기도 하다. 작가 조정래는 일제강점기 수탈과 지배가 극심했던 김제만경평야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 자행된 일제의 만행뿐 아니라 이에 대항하고 맞서 싸워왔던 민초들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였다.

600여 명의 허구적 인물과 실재인물을 서로 실타래처럼 엮어내 사실성을

30) 문재원, 『문화전락으로서의 장소와 장소성—요산 문학에 나타난 장소성을 중심으로』, 『장소성의 형성과 재현』, 해안, 2010, 27쪽 참조.

구현하는 가운데 작가 조정래는 김제만경평야를 사회적인 공론의 장으로 확대시켜 장소성을 모색하고자 했다. 김제만경평야를 중심으로 한 만주, 연해주, 홋카이도, 하와이로의 공간 확장은 김제만경평야가 개인적인 장소애착에만 머무는 곳이 아니라 강제노역과 이산의 슬픔, 그리고 이름 없이 죽어간 위안부들과 징용자·징병자, ‘반쪽짜리’ 해방을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의 장소로 부각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조정래의 『아리랑』에서 김제만경평야의 장소성은 군산이라는 식민 항구도시와의 관계뿐 아니라 만주와 연해주, 하와이, 홋카이도라는 이주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만 한다. 앞으로 자국중심적인 국민국가의 틀에서 벗어나 글로벌리즘적인 입장에서 지역-간 연구가 좀 더 활발하게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아리랑』에 나타난 김제만경평야의 장소성과 그 지역적 의미가 구체적으로 구명될 수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조정래, 『아리랑』 전12권, 해냄, 2판 5쇄, 2002.

2. 논문 및 단행본

강찬모, 「조정래의 대하소설 『아리랑』에 나타난 한민족 디아스포라 연구—미국 이주 韓人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33호, 한국비평문학회, 2009, 7-30.

권희영, 「중앙아시아 한인들의 역사적 외상과 그 영향 분석」, 『우즈베키스탄 한인의 정체성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21-66.

김군태·강현모,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이주와 삶』, 글누림, 2015.

김민영·김양규, 『철도, 지역의 근대성 수용과 사회경제적 변용—군산선과 장항선』, 선인, 2005.

김영필, 『조선족 디아스포라의 만주아리랑』, 소명출판, 2013.

김창식, 「민족사의 복원과 민족혼의 부활을 위하여—조정래의 『아리랑』」, 『오늘의 문예비평』, 오늘의 문예비평, 1996, 303-323.

김호경·권기석·우성규, 『일제 강제동원, 그 알려지지 않은 역사』, 돌베개, 2010.

마이클 김, 「상실된 전쟁의 기억—월경의 트라우마와 조선인들의 만주 탈출 1945-1950」, 『기억과 전쟁—미화와 추모 사이에서』, 휴머니스트, 2009, 323-344.

문재원, 「문화전략으로서의 장소와 장소성—요산 문학에 나타난 장소성을 중심으로」, 『장소성의 형성과 재현』, 혜안, 2010, 21-51.

왕은철, 「식민지 시대의 지식인상을 통해서 본 민족주의—조정래의 『아리랑』론」, 『비평문학』 제14호, 한국비평문학회, 2000, 232-249.

우수영, 「조정래 『아리랑』에 출현하는 공감연대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 제59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183-203.

- 윤영옥, 「근현대 농민소설에 나타난 농민의 표상과 민족—조정래의 『아리랑』, 이기영의 『두만강』에 나타난 사회연결망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159집, 국어국문학회, 2011, 295-328.
- 이덕희, 『하와이 이민 100년—그들은 어떻게 살았나?』, 중앙 M&M, 2003.
- 이상근, 『러시아·중앙아시아 이주한인의 역사』, 국학자료원, 2010.
- 이-푸 투안, 구동화·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운, 1995.
- 장석주, 『장소의 탄생』, 작가정신, 2006.
- 장영우, 「사실의 재구(再構)와 원근법의 수위(水位)—조정래, 『아리랑』론」, 『조정래』, 글누림, 297-324.
- 전영의, 「『아리랑』의 오리엔탈리즘과 디아스포라」, 『현대소설연구』 제46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187-223.
- 정종진, 「조정래의 『아리랑』, 『태백산맥』에 나타난 사서인(士庶人) 정신 연구」, 『비평문학』 제20호, 한국비평문학회, 2005, 263-284.
- 조남현, 「역사적 진실과 소설적 흥미의 상성(相成)—『아리랑』론」, 『조정래』, 글누림, 2010, 279-296.
- 조정래, 『누구나 홀로 선 나무』, 문학동네, 2003.

【Abstracts】

A Study of Placesness in *Arirang* written by Jo Jeong-Rae

Byun Hwa-yeong

The spatial background of *Arirang* is Kimje Mangeong plain. The folklore who lived in Kimje Mangeong plain forced to leave their homeland due to the land-grab and deceptive policy of Japanese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y dispersed to Manchuria, Maritime Province in Russia, Hawaii and other regions. The people who migrated in Manchuria and Maritime Province in Russia, cultivated rice with the memory and experience of their rice-producing at homeland, and finally settled down the societies of China or Russia. The others who went down the sugarcane farm in Hawaii settled down in American society with the persistent and hard-working disposition learned through their experience. But many young adults and women who were drafted as military service or comfort women almost died or were missing. If they were not mentioned in *Arirang*, they might be forgot without knowing their names, such as Ji Man-bog, Park Yong-hwa, and Boksili. Many individuals who participated the anti-Japanese movements and struggles for independence, like Sin Chae-ho, Na Cheol, Hong Beom-do, Kim Jao-jin, Park Yeong-man, Kim Won-bong and others, could be an objective of collective memory with the help of active involvements and sacrifices of the ordinary people, like Song Su-geon, Bang Dae-geon, Bang Young-geon, Lee Gaong-min. In *Arirang* the writer Jo Jeong-rae tried to

find out the placeness of Kimje Mangeong plain as an public place of society, by implementation of authenticity mixing fictional characters and real persons more than 600s. Space extension from Kimje Mangeong plain to Manchuria, Maritime Province in Russia, Hawaii, Hokkaido and others, means that Kimje Mangeong plain to be not only the place attachment of individuals but also the sites of memory of the forced labor, pain of separation, half-liberation.

Key words: Jo Jeong-Rae, *Arirang*, Kimje Mangeong Plain,
Rice-Producing, Placeness, diaspora, memory

이 논문은 2016년 2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6년 3월 2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6년 3월 2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